



湖南新聞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지역

7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영암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한다

희망 농가에 시설 설치비의 60% 보조

영암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책기,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에 시설 설치비의 60%를 보조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 농가는 매년 반복적으로 피

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 자부담에 동의하면서 자구노력이 강한 농가로 사업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며 경정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이외에도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직접 구제에 나서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주시, 동계 전지훈련팀 2만 4000여 명 찾아

8개 종목 136개 팀 방문…3월까지 3만 명 달성 기대



동계 스포츠 훈련 최적지로 각광 받는 여수에 전지훈련팀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여수시는 2월 현재 8개 종목 136개 팀, 선수 2만 4000여 명이 여수를 찾았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국비 포함 11억원 예산확보…위험교량 보수

6월까지 조기마무리 계획

장흥군은 2019년 국비 5억 5천만 원을 포함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6월까지 관내 위험교량 12 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험교량 정비사업은 교량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교량을 보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정비가 필요한 위험교량을 진단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7년 교량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교량의 노후정도나 시설물 상태에 따라 A~E등급(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감천교 외 11개소에 대해 교면포장, 신축이음 교체, 난간보수, 배수구 정비, 받침장치 도장 등 의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비(특별교부세) 5억 5천만 원 등 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조기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도 등급이 낮은 교량은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2021년까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구역 내 교량은 총 8개소로 규모로, 중요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18개소, 특정관리 대상 47개소, 일반관리대상 15개소로 관리하고 있다.

정종순 군수는 "인명피해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건의한 것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공사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

화순 적벽투어, 인근 관광지 연계 코스로 새로워진다

내달 23일부터 운행 시작…예약 없이 현장 신청도 가능



화순군이 3월 23일부터 운행할 화순적벽 버스투어의 새로운 코스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이시면 방면의 적벽 중심으로 운행됐다. 올해는 적벽과 인근 다른 면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권역별 2개 코스를 추가한다.

동부권 코스 관광지는 적벽과 ▲

국가지정 명승 '임대정 원립' ▲김삿갓 종묘지가 있는 '김삿갓 동산'

▲MBC 아빠 어디가 촬영지인 '연둔리 숲정이' ▲'오지호 기념관' 등을

연계했다.

서부권 연계 관광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천불천탑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운주사' ▲'조광조 선생 유배지' 등

군 관계자는 "적벽이 무등산권 세 계지침공원 인증을 받고 국가지정문화 명승으로 지정될 전국적 명소가 됐다"며 "화순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화순의 역사와 수려한 풍광 등을 즐길 수 있게 버스투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군, 활기찬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완도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읍·면,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완도시니어클럽 등 3개 기관이며 총 33억 원의 사업비로 1,1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실시하며, 각 수 행 기관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형 일자리(공의활동), 시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형 일자리는 월 30시간, 27 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6시간, 73 만 원, 시장형 일자리는 수익에 따라 수당 등급여가 지원된다.

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참여농가 대상 특별교육



을 위해 안전성,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이해를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농산물 생

산관리 및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성향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홍보 및 판매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며, 급변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PLS 제도를 이해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 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산물

생산·공급에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며, 농협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보면교사를 기치로 삼아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 강진군 지난 12월 공공급식 센터를 완공해 서울시 동작구 공공시설 80개소(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쌀, 정육 등을 납품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2억원을 투입 강진 동협 파마스마켓 내에 금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강진군 농어업인 판매망 확보 및 소득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